

골격성 부정교합의 비수술적 교정치료

임 중 기 / 압구정 연치과

최근의 미니스크류의 발달로 교정치료 범위가 극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골격성 부정교합에서 비수술적 교정치료의 최근 경향과 치료목표, 치료결과를 임상적 증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의 비수술적 치료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상악골 과성장과 하악골 열성장 그리고 이들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성장이 종료된 성인에서 하악골의 절대적 크기를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상악골 과잉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외모와 기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1) 상악골 수평적 과잉성장 (Horizontal Maxillary Excess)

치성과잉과 골격성 과잉으로 분류된다. 치성과잉은 전통적인 교정치료로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골격성 과잉은 흔히 '잇몸돌출'로 알려진 상악 전치 각도가 정상이거나 이미 옥니처럼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돌출입 수술이 추천되지만 상악 전치 치축을 잘 조절하는 경우 교정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상악골 수직 과잉성장 (Vertical Maxillary Excess)

상악 전치부 과잉성장은 일반적으로 돌출입과 gummy smile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상악 전치와 함입과 견인으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악 구치부 과잉은 하악골이 후퇴되고 전치부 개교교합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체 상악의 수직과성장의 경우에는 전체 상악의 함입을 통해서 후퇴된 하악골의 전상방회전과 돌출입을 개선할 수 있다.

2. 골격성 3급의 비수술적 치료

3급 부정교합의 비수술적 치료목표는 반대교합의 개선, 상악 전치 노출량 증가, mentolabial sulcus의 형태회복이다.

1) 하악에서의 치료방법

하악골 크기 자체는 외과적 수술 외에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하악 전체 치열을 후방이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모를 고려해서 비발치 치료를 하고 미니스크류의 식립위치가 중요하게 된다.

2) 상악에서의 치료방법

상악골은 상대적으로 soft한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고, 정중구개봉합이 20대 후반까지 일부 열려있기 때문에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급속확장장치(MARPE)로 골격적 확장을 시도하고, 성공적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 전방견인장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상악골과 상악 치아의 전방이동을 도모하게 된다.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박사
- *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수련
- * 연대, 이대, 아주대 교정과 외래교수
- *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회장
- * 대한치과교정학회 윤리위원장
- * 현, 압구정 연치과의원 원장